

충실성의 딜레마: 금기비속어 ‘fuck’의 번역 양상 및 번역 수용에 관한 설문연구

김가희 · 박윤희
(동국대_서울)

1. 머리말

문학 번역의 목적은 원작을 원어로 읽을 수 없는 독자들에게 번역서를 통하여 원작을 읽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번역 비평의 가장 가치적인 잣대로 사용되고 있는 충실성(fidelity)과 가독성(readability)의 규범을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한다. 충실성은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번역했는가를 판단하는 영역이며 가독성은 번역문의 우리말 구사 수준을 판단하는 영역이다(영미문학연구회 2005: 21).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 이 두 개념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우르타도 알비르(Hurtado Albir)는 번역의 충실성을 다음 세 가지, 즉 저자의 의도에 대한 충실성, 도착어에 대한 충실성, 도착어 독자에 대한 충실성으로 정의하고 있다(Albir 1990: 118, Kolawole & Salawu 2008 재인용)¹⁾. 첫째 저자의 의도에 대한 충실

성은 단어나 문맥의 차원을 넘어 저자의 차원에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도착어에 대한 충실성은 도착어의 문학 시스템 규범을 존중하여 타당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인 도착어 독자에 대한 충실성은 도착어 독자의 기대치 및 그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충실성 중에서 둘째와 셋째는 ‘가독성’을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가독성’도 결국에는 ‘충실성’에 포함되는 혹은 두 개념이 상당 부분 공통분모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학 번역에서 알비르가 제시한 세 가지 충실성을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번역가들에게 적지 않은 난관으로 작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금기 비속어²⁾ 번역이다. 비록 금기 비속어가 윤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일 지라도 현실 세계의 축소판인 소설이나 영화 속의 등장인물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개성을 부각시키기에 적합한 언어 재료(한미선 2011: 1)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등가어 부족, 출발 문화와 도착 문화 사이의 상이성, 번역가의 성향에 따른 자가 검열, 정치적, 사회적 요소들에 의한 검열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출발어 독자가 갖는 효과를 도착어 독자에게 똑같이 전해야 하는 문학번역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실하게 번역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금기 비속어가 작품에 고유한 스타일과 다양한 특수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경우, 충실성의 범주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번역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처럼 금기 비속어에 대한 번역의 난관을 극복하고 충실한 번역을 위해 번역 현장에서의 번역가의 입장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충실성과 금기비속어의 번역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번역을 소비하고 수용하는 독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원문을 직접 읽어낼 수 있는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 현대의 독자들은 수동적인 수용자의 입장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와 번역 비평을 댓글이나 서평,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표현하고 번역의 품질을 적극적으로 판단, 비평(김순미 2012: 8)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문학번역 목적의 대상인 도착어 독자에 대한 충실성

1) <http://translationjournal.net/journal/46lit.htm>

2) 본 논문에서는 금기어(taboo word), 비어(swear word), 속어(slang)을 총칭하는 것으로 금기 비속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을 재고(再考)하기 위한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권 문학에서의 대표적인 금기 비속어인 *fuck* 및 *fuck*의 형태학적 변형어(morphological variants)의 번역 양상을 맥커너리(Anthony McEnery)와 샤오(Zhonghua Xiao)가 2004년에 발표한 논문³⁾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 할 것이다. 이 분류 체계는 *fuck* 및 *fuck*의 형태학적 변형어가 영어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아홉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이 아홉 가지 방식과 비교하여 이러한 단어들이 문맥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역의 현상에 대한 독자반응을 설문조사를 통해 규명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설문 문항에 대한 설문 참여자의 응답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독자의 충실성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헬렌 필딩(Helen Fielding)의 작품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Bridget Jones's Diary*)와 『브리짓 존스의 애인』(*Bridget Jones: The Edge of Reason*)의 원본 2권과 번역서 2권이다. 이 두 작품에서 주인공 브리짓이 거침없이 내뱉는 강도 높은 욕설이나 직설적인 성적 표현은 현대 여성의 독립성과 강인함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담긴 것이므로 금기 비속어의 번역 양상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의 자료로 사용하는데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선행연구

성별, 연령별, 사회 계층별 비속어 사용에 관한 연구는 British National Corpus(BNC)⁴⁾가 구축됨과 동시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McEnery & Xiao 2004: 235). 보통 ‘four-letter word’ 또는 ‘f***’로 표현되어 금기시 되는 비속어인 *Fuck*은 고통, 즐거움, 증오, 심지어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가장 흥미롭고 다채로운 어휘 중 하나이다(Anderson and Trudgill

3) ‘Swearing in Modern British English: The case of Fuck in the BNC’

4) BNC는 20세기 후반의 영국 영어의 전모를 반영하도록 기획되었는데, 총 1억 단어에 달하는 41,000여개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글말이 90%, 입말이 10%를 차지하고 있다(김용진 2007: 50).

1992: 60, McEnery & Xiao 2004: 235 재인용). 맥커너리와 샤오는 현대 영어에서 *Fuck* 및 관련 코퍼스의 일반적인 사용 패턴을 규명하고 그 사용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맥커너리는 여러 금기 비속어를 사용하는 양태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여성은 *bloody, bugger, pig, bitch, hell, pissy*와 같은 다소 강도가 약한 단어 사용을 선호하는 반면에 남성은 *bastard, fuck, cunt, fucking, Jesus, fucker* 같은 강한 표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밝혔다(McEnery 2006: 31).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금기 비속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여성과 남성이 거의 차이가 없음을 밝혀냈다(2006: 29). 한편 호세 산태밀리아(José Santaemilia)는 맥커너리와 샤오의 분류 체계에 따라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와 『브리짓 존스의 애인』에서 *fuck* 및 *fuck*의 형태학적 변형어의 쓰임을 분류하였다. 아래 <표 1>은 맥커너리와 샤오의 분류 방식 및 BNC를 토대로 한 금기 비속어들의 사용 빈도와 그 방식에 맞춰 산태밀리아가 두 작품에서 분석한 금기 비속어들의 분류 및 작품 속에서의 사용 빈도수를 동시에 보여 준다.

<표 1> *fuck* 및 *fuck*의 형태학적 변형어의 분류와 사용 빈도

코드	분류	예문	BNC에서의 사용빈도%	두 작품 속에서 사용빈도%
G	General Expletive	<i>(Oh) fuck!</i>	6.72	26.40
P	Personal Insult/Referring to Defined Entity	<i>You fuck!/ that fuck</i>	1.87	9.30
C	Cursing Expletive	<i>Fuck you/me</i>	5.99	0.00
D	Destinational Usage	<i>Fuck off</i>	5.43	4.60
L	Literal Usage Denoting Taboo Referent	<i>He fucked her</i>	7.16	0.00
E	Emphatic Intensifier	<i>Fucking marvellous</i>	55.85	35.75
O	'Pronominal' Form	<i>Like fuck/ fat as fuck</i>	1.54	0.00
I	Idiomatic 'Set Phrase'	<i>Fuck all/ give a fuck</i>	12.30	6.20
X	Meta linguistic or Unclassifiable Due to Insufficient Context	<i>The use of the word 'fuck</i>	3.14	17.80

산테밀리아는 더 나아가 *fuck* 및 관련 코퍼스가 스페인어와 카타리아어로 번역되었을 때 두 언어 간에 나타나는 번역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언어의 번역본 모두에서 이 비속어의 의미 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번역가의 자가 검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스페인어와 카타리아어로 각각 번역되었을 때 두 번역에서 나타나는 유의미한 차이에만 초점을 둔 연구로 위의 표에서처럼 두 원전에 사용된 *fuck* 및 관련 코퍼스 분류 및 사용빈도를 측정된 것과 비교하여 두 언어로 번역된 각 번역본에서 관련 코퍼스의 분류와 사용빈도 측정이 생략된 것이 다소 아쉽다. 한미선(2011: 299)은 문학번역에서 발생하는 비속어의 격식 변화와 이로 인한 텍스트 내적 손실을 고찰하는 연구를 통하여 비속어를 번역할 때, 번역문에서 어휘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하거나 해당 어휘 자체를 번역하지 않을 경우, 원문과는 다소 다른, 심지어는 상반된 문체 효과를 창출하여 저자가 의도한 인물의 성격 및 사회언어학적 배경 맥락과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 사례들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마르쿠스 카자알라이넨(Markus Karjalainen)은 J.D. 셀린저(J.D. Salinger)의 『호밀밭의 파수군』을 스웨덴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분석 대상으로 ‘문화의 차이에 의해 금기 비속어 번역이 완화된다.’라는 자신의 가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또한 번역으로 인하여 원전과 번역본에서 사용된 금기 비속어의 개수에 차이가 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한미선과 카자알라이넨의 연구에서 입증된 것처럼 번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전과 번역본의 유의미한 차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될 수 있고 번역을 수용하는 도착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카탄(Katan)은 번역가가 의도를 가지고 텍스트에 변화를 준다거나 혹은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어휘적 차원에서 손을 댄다는 것에 여전히 부정적이라(Katan 1996: 15, Karjalainen 2002: 5 재인용)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 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번역가의 선택’에 대한 수용자들의 견해를 밝혀보는 것이 의미 있다 하겠다.

3. 작품 분석

본 논문에서는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와 『브리짓 존스의 애인』 번역본에서 *fuck* 및 *fuck*의 형태학적 변형어의 번역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으로는 맥커너리와 샤오(2004)가 제시한 분류 체계를 따랐으며, *fuck* 및 *fuck*의 형태학적 변형어와 이러한 코퍼스의 출현 빈도수를 두 작품에서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도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안트콘트(AntConc 3.2.4.)⁵⁾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한 문장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하나의 경우로, 동일하지 않은 변형어가 한 문장에서 혼합되어 사용된 경우는 각각 다른 경우로 빈도수를 측정했다.

<i>Fuck (v.&n.)</i>	27
<i>Fucking</i>	26
<i>Fuckwittage</i>	17
<i>Fuckwits & Fuckwit</i>	9
<i>Fuck up, Fuck off, Fuck ups</i>	6
<i>Fucketty</i>	1

위에 나열된 변형어 가운데 ‘*Fuckwittage*’는 헬렌 필딩이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에서 처음 만들어 사용한 신조어로 온라인 속어사전인 *Urban Dictionary*⁶⁾를 제외한 어떠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 단어가 번역본에서는 문맥에 따라 ‘정서 장애자’ ‘정서 장애자 증후군’ ‘얼간이’ ‘개수작’으로 번역되었다. ‘*Fuckwits*’와 ‘*Fuckwit*’의 경우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로 ‘정서 장애자’ ‘얼간이’ ‘잘못’으로 번역되었다. ‘*Fuckwittage*’는 *Urban Dictionary*에서 데이트 할 때 ‘남자들의 심리전’을 나타내는 단어로 드물게 여성에게도 사용될

5) 안트콘트는 윈도우(98/Me/2000/NT/XP), 매킨토시 OS X, 리눅스 상에서 무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 색인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나 연구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텍스트 분석 툴로도 사용된다(<http://researchers.tistory.com/145>)

6) <http://www.urbandictionary.com/define.php?term=fuckwittage>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Fuckwits’와 ‘Fuckwit’는 바보, 얼간이를 뜻하는 금기 비속어이다. 이러한 세 개의 단어가 대부분 격식 있는 전문용어인 ‘정서 장애자’ ‘정서 장애 증후군’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헬렌 필딩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성의 숭고한 사랑의 감정을 짓밟는 부도덕한 남성을 향한 비난의 어조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한 점과 여주인공이 사용하는 거친 욕설이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캐릭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원저자의 의도임을 고려했을 때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했다는 것은 원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한미선 2011: 114). ‘Fuck’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로 ‘빌어먹을’ ‘젠장’ ‘제기랄’로 주로 일반적인 욕설로 번역되었으며 ‘Fucking’의 경우 문맥에 따라 일반적인 욕설로 번역된 곳도 있었지만 주로 감정적 ‘강조’의 의미로 번역되었다. 원문과 달리 번역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가 ‘감정적 강조’로 번역된 비율(6.98%)이 원전에서 사용된 비율(35.70%)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과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맥커너리와 샤오가 제시한 아홉 가지 분류 이외에 번역과정에서 발생한 ‘생략,’ ‘완곡,’ ‘중복,’을 들 수 있다. 이는 도착 문화의 어휘 수용도 문제, 번역가의 자가 검열, 출판 관계자, 번역가의 전략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번역의 충실성에 반하는 이러한 ‘생략’과 ‘완곡’ 현상에 관한 독자의 반응 및 견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2>는 두 번역문에서 fuck 관련 코퍼스 86개를 맥커너리와 샤오의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몇몇의 경우는 분류하는데 매우 모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표 2> fuck 관련 코퍼스 분류 및 사용 빈도

코드	분류	번역 예	%
G	일반적인 욕설(General Expletive)	Oh fuck, oh fuck. 아, 빌어먹을, 빌어먹을.	24.42
P	개인적인 모욕, 특정 존재에 대한 언급(Personal Insult/Referring to Defined Entity)	fucking Jerome, fucking, fucking Jerome. 빌어먹을 제롬, 빌어먹을, 빌어먹을 제롬.	13.95

C	악담(Cursing Expletive)	Why don't you just go fucking fuck yourself, you fat... 빌어먹을, 당신 같은 건 엇이나 먹으라지, 이 똥보.....	1.16
D	방향성의 의미를 담은 욕설 (Destinational Usage)	Fuck off, everyone, this is my personal space. 꺼져! 여기는 내 개인 공간이야.	2.33
L	성행위의 의미(Literal Usage Taboo Referent)	-----	0
E	감정적 강조 (Emphatic Intensifier)	It's a fucking big 'un, where do you wan' it? 정말 더럽게 크네.	6.98
O	대명사 ('Pronominal' Form)	In twenty years' time men won't even dare start with fuckwittage because we will just 앞으로 이십 년 후면 남자들은 감히 우리 앞에서 그런 개수작은 하지 못하게 될 거야.	4.65
I	관용어 (Idiomatic 'Set Phrase')	Um. Urn. Oh fuck off, Jeremy. 음. 음. 오 닥쳐, 제레미.	3.49
X	메타언어(Meta linguistic or Unclassifiable Due to Insufficient Context)	Emotional fuckwittage 정서 장애자 증후군	18.60
생략	표현이 생략되어 번역됨	Bridget, this isn't a promotional biro, it's a fucking bullet. 브리짓, 이건 홍보용 볼펜이 아냐. 이건 총알이야.	13.95
완곡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됨	That is why everything is such a fucking, fucking, fucking...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6.98
중복	한 단어가 중복적으로 번역됨	Bridget... where the fuck 브리짓...빌어먹을 ...도대체 어디에 있는거야?	3.49

4. 설문 연구의 설계와 실행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설문 조사의 목적은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와 『브리짓 존스의 애인』에서 성 관련 비속어인 *fuck* 관련 코퍼스 번역에서 ‘생략,’ ‘완화,’ ‘중복’이라는 원문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성 관련 비속어 *fuck*, *fuckwing*, *fuckwit*와 같은 단어들에 관한 설문 응답자들의 견해 및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른 반응 비교

둘째, ‘생략’ 혹은 ‘완화’가 발생한 번역문만 주어질 때의 응답자들의 반응과 동일한 번역문과 해당 원문이 같이 주어질 때의 반응 비교 그리고 번역문만 있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답을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원문이 주어진 경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비율

셋째, 번역서에서 성 관련 비속어 번역에 관한 응답자들의 견해

넷째, 번역본이 비속어 및 성적인 표현이 완화되거나 누락되어 번역될 경우, 응답자가 충분히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응답자의 선택

총 325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설문조사 응답의 신뢰성 제고(提高)를 위해 불성실한 응답자의 설문은 배제하고 설문조사 응답에 반영된 응답자를 총 293명으로 하였다. 설문 참가자들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245명과 경기도 소재 시청 소속 직원 48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인 두 권의 작품은 현대 여성의 삶과 정서를 바탕으로 많은 젊은 독자들의 공감과 호감을 얻었고 이 후 영미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가볍고 유행에 민감한 여성 소설류인 ‘치킷(chick lit)’의(남희진 2008: 97) 효시라 할 수 있다. 분석 작품의 특성상 주된 설문 참가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고 비록 소그룹이기는 하나 대조군으로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을 참가시켰다.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150 대 143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대학생이 주된 응답자이므로 20대 256명(87.4%), 30대 20명(6.8%), 40대 16명(5.5%), 50대 1명(0.3%)로 연령별 불균형이 있다.

5.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본 설문 조사 연구의 응답자 가운데 84.3%가 『브리짓 존스의 일기』를 영화로 보지 않았거나 소설을 읽지 않았으며 『브리짓 존스의 애인』은 그러한 경우가 응답자의 96%에 달했다. 이는 일면 설문 대상 작품에 대한 내용이나 배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 두 대상 작품에 대한 선입견 없이 제시된 설문 문항에 솔직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로 보아 실제로 작품에 대한 설문 참여자들의 이해도가 본 설문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설문 조사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성 관련 비속어인 *fuck*, *fucking*, *fuckwit*에 대한 설문 참여자들의 견해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어들에 대하여 성별 간 견해차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문항 9번에 응답자 성별에 따른 카이스퀘어 검정⁸⁾(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이는 설문지의 순서상 번역문의 수용 정도를 묻는 문항(문항 3번에서 8번)에서 성 관련 비속어인 *fuck*, *fucking*, *fuckwit*가 포함된 원문과 번역문이 있는 문항(문항 10번에서 15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시된 문항으로

7) 칙릿은 우리의 포스트페미니즘 문화의 현대독자들인 “새로운 여성”들에 대한, 그들을 위한 소설임과 동시에 여성 독자들을 위해 대부분 여성작가들에 의해서 쓰인 대중적 문학 양식이다(Suzanne & Young 2006: 12, 남희진 2008: 101 재인용).

8)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 명목척도나 순서척도와 같이 범주형 변수들로만 구성되었을 때, 두 변수들 간의 관련성(association)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 검정 즉 카이스퀘어 검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윤지성 · 이재호 2013: 94).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의견을 묻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를 설문조사 분석 결과의 첫 번째 목적으로 순서를 정한 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의 성관련 비속어에 관한 인식 및 성별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본 설문연구 전체를 이해하는데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아래 <표 3>은 설문 문항 9번에 대한 내용 및 응답자의 답변에 관한 데이터이다.

<표 3> fuck, fucking, fuckwit과 같은 단어들에 대한 견해

	응답자	%	유효%	누적%
일반적으로 대화에 많이 사용되는 영어로 하는 욕(비속어)이라고만 생각한다	189	64.5	64.7	64.7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욕이라고 생각한다	59	20.1	20.2	84.9
Valid 성적 의미만 담고 있는 표현으로 알고 있다	10	3.4	3.4	88.4
욕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을 정도로 친숙하게 접하는 표현이다	34	11.6	11.6	100.0
Total	292	99.7	100.0	
Missing System	1	.3		
Total	293	10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64.7%가 단순한 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성적의미를 담고 있는 욕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20.2%이다.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친숙하게 접하는 표현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1.6%나 된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응답자의 답변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성별 견해차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카이스퀘어 검정의 결과는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P값이 0.106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통계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표 4>에서 보듯이 각 선택지에 따른 남녀별 응답 비율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나 선택지 4번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의 두 배가 되는 것으로 보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속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성별 비교

		fuck, fucking, fuckwit에 대해				Total	
		선택지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3번	선택지 4번		
성별	Male	Count	91	28	7	23	149
		% within 성별	61.1%	18.8%	4.7%	15.4%	100.0%
	Female	Count	98	31	3	11	143
		% within 성별	68.5%	21.7%	2.1%	7.7%	100.0%
Total	Count	189	59	10	34	292	
	% within 성별	64.7%	20.2%	3.4%	11.6%	100.0%	

본 설문 조사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번역문만 있었을 때의 응답자들의 반응과 원문과 번역문이 같이 주어질 때의 반응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번역문만 있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원문이 주어진 경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비율 및 그 의미하는 바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번역문에서 “*fucking*”, “*fuck*”이 생략되거나 완화되어 번역된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문 그 자체에 대해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다섯 가지 선택지를 넣어 문항 3번부터 문항 8번까지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 또한 동일한 번역문에 해당 원문을 제공하여 원문이 없었을 때 응답자들의 반응과 원문이 있었을 때의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 문항을 10번부터 15번까지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아래 <표 5>는 실제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 4번의 질의 내용과 선택지 문항으로 ‘생략’이 발생한 경우이다.

〈표 5〉 설문지 4번 문항

4. 다음은 소설의 일부입니다: ‘모두가 일제히 나를 응시했다. “뭐라고 말을 좀 해봐. 또 지각한 브리짓 양!”’
 밑줄 친 부분을 읽을 때

- 1) 대화 상황이 이해가 가며 화자(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 2) 화자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뭔가가 부족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3)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 가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4) 대화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화자의 감정을 읽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 5) 잘 모르겠다.

〈표 6〉 4번 문항에 대한 선택지 선택 비율

	응답자	빈도%	유효빈도%	누적빈도%
Valid	선택지 1번	177	60.4	60.4
	선택지 2번	50	17.1	77.5
	선택지 3번	36	12.3	89.8
	선택지 4번	20	6.8	96.6
	선택지 5번	10	3.4	100.0
Total	293	100.0	100.0	

위의 <표>는 응답자들이 선택한 선택지의 비율을 나타낸다. 선택지 1번부터 3번까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번역문에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자의 89.8%가 제시한 지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제시된 번역문만을 읽었을 때 ‘가독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번역문에 원문을 제시한 설문 문항 11번은 아래 <표7>과 같다.

〈표 7〉 설문지 11번 문항

11. 다음은 소설의 원본과 번역의 일부로 원본의 “**fucking**”이 번역문에서는 생략되어 번역되었습니다.

Everyone stared at me. ‘**Come on, Bridget-fucking-late-again,**’ he shouted impatiently. (p.248)

모두가 일제히 나를 응시했다. “뭐라고 말을 좀 해봐. 또 지각한 브리짓 양!” 리처드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악을 썼다. (p.317)

- 1)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3)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 4) 원본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비속어 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5) 잘 모르겠다.

〈표 8〉 11번 문항에 대한 선택지 선택 비율

	응답자	빈도%	유효빈도%	누적빈도%
Valid	선택지 1번	61	20.8	20.8
	선택지 2번	98	33.4	54.3
	선택지 3번	85	29.0	83.3
	선택지 4번	27	9.2	92.5
	선택지 5번	22	7.5	100.0
	Total	293	100.0	100.0

위의 <표 8>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선택지의 비율을 나타낸다. 선택지 3번의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29%나 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지만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선택지 2번을 답한 비율은 33.4% 이다. 이에 더 나아가 문항 4번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89.8%의 응답자 가운데 원문을 보고 견해를 달리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9〉 Q11의 응답 비율

Q3 문항의 1, 2, 3번 응답자 수		선택지 1	선택지 2	선택지 3	선택지 4
응답인원수	263	58	88	75	26
비율	100	22%	33%	29%	10%

선택지 5번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은 <표 9>에 나타나 있다.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의 29%가 문제가 있다고 견해를 바꾸었고 적어도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응답자의 비율이 62%인 것이다. 이는 성 관련 비속어인 *fucking*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잠재적 독자인 응답자들에게 친숙 그 이상으로 일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는 것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마찬가지로 설문지에서 다루고 있는 같은 유형의 문항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양상⁹⁾을 보였다.

본 설문 조사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세 번째 목적은 번역서에서 성 관련 비속어 번역에 관한 응답자들의 견해, 즉 설문 참여자들이 번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혹은 성관련 비속어 번역에 대해 바라는 바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문항 16번과 응답자들의 응답에 관한 데이터는 아래 <표 10>와 <표 11>에서 볼 수 있다.

〈표 10〉 설문지 16번 문항

<p>16. 비속어, 성적인 표현에 대해</p> <p>1) 원작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히 완화해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2) 원작의 의도대로 독자로서의 읽을 권리를 위해 최대한 반영해서 번역해야 한다.</p> <p>3) 번역서의 경우 원문을 모르므로 번역문이 원활하게 읽힌다면 완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p> <p>4) 잘 모르겠다.</p>

9) 3번 문항의 긍정적인 응답자 84%중에서 ----> 10번 문항에서 66%가
5번 문항의 긍정적인 응답자 68.8%중에서 ----> 12번 문항에서 53%가
6번 문항의 긍정적인 응답자 86.7%중에서 ----> 13번 문항에서 48%가 견해를 달리 하였다.

〈표 11〉 16번 문항에 대한 선택지 선택 비율

		응답자	빈도%	유효빈도%	누적빈도%
Valid	선택지 1번	57	19.5	19.6	19.6
	선택지 2번	145	49.5	49.8	69.4
	선택지 3번	74	25.3	25.4	94.8
	선택지 4번	15	5.1	5.2	100.0
	Total	291	99.3	100.0	
Missing	System	2	.7		
Total		293	100.0		

선택지 2번인 ‘원작의 의도대로 독자로서의 입을 권리를 위해 최대한 반영해서 번역해야 한다.’가 49.5%를 차지한 것으로 독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충실성’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독자들이 바라는 것이므로 독자에게 충실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번역 시장의 잠재 독자인 응답자들이 선택지 3번 ‘번역서의 경우 원문을 모르므로 번역문이 원활하게 읽힌다면 완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25.3%이다. 이는 가독성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번역서를 읽는 독자로서 바라는 바를 드러낸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활하게 읽힌 번역문에 대해서도 원문을 접했을 경우 번역문에 만족한 응답자의 50% 이상이 견해를 달리한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성별 및 연령별 견해차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P값이 0.622로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령별 분석에서도 P값이 0.211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간 분석에서는 여성의 22.4%가 선택지 1번을 선택하는데 비해 남성의 경우 16.9%가 선택하여, 여성이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령 별로는 선택지 2번을 선택한 20대, 30대, 40대의 비율이 각각 48%, 70%, 50%¹⁰⁾인 것으로 보아 번역에 대해 연령에 관

10) 응답자의 수는 20대 254명, 30대 20명, 40대 16명, 50대 1명이며 30대의 응답 비율이 70%로 높으나 응답자 수가 적으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계없이 대체적으로 ‘충실한 번역’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설문 조사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네 번째 목적은 번역본이 비속어 및 성적인 표현이 완화되거나 누락되어 번역될 경우, 응답자가 충분히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응답자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세계화와 맞물린 조기 영어교육 및 해외 유학의 증가로 외국어 능통자의 수가 날로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1년 신간 중 번역서의 비중이 26.1%¹¹⁾나 되는 출판 시장의 미래와 관계된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된다. 다음은 설문 문항 20번과 그에 대한 데이터를 <표 12>와 <표 13>로 나타냈다.

<표 12> 설문지 20번 문항

20. 응답자의 경우, 번역본이 비속어, 성적인 표현이 완화되거나 누락되어 번역된다면, 그리고 충분히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1) 읽는 즐거움을 위해 원서를 읽겠다. 2) 편리성 때문에 반드시 번역서를 읽는다. 3) 내용에 크게 지장 없다면 번역서를 읽는다. 4) 잘 모르겠다.

<표 13> 20번 문항에 대한 선택지 선택 비율

	응답자	빈도%	유효빈도%	누적빈도%
Valid	선택지 1번	137	46.8	46.9
	선택지 2번	28	9.6	9.6
	선택지 3번	114	38.9	39.0
	선택지 4번	13	4.4	4.5
	Total	292	99.7	100.0
Missing	System	1	.3	
Total	293	100.0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 선택지 1번 ‘읽는 즐거움을 위해 원서를 읽겠다.’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응답의 결과는 46.9%에 그쳤다. 그

11) <http://news1.kr/articles/971490> (출판연구소, 18일 '한국 출판의 생존전략과 발전방안' 포럼 개최, 2013.01.15.)

러나 선택지 2번인 ‘편리성 때문에 반드시 번역서를 읽는다.’가 9.6% 그리고 선택지 3번 ‘내용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번역서를 읽는다.’가 39%나 되었다. 이는 번역이 훌륭하다면 직접 원서를 읽을 능력이 있어도 번역서를 보겠다는 응답자가 47.5%로 근소하게나마 선택지 1번을 앞선 것이다. 이는 번역의 충실성이 보장된다면 미래의 번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이 문항에 관한 성별 및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P값이 0.138로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령별 분석에서도 P값이 0.16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유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맺음말

번역가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원전을 읽을 수 있는 독자의 수가 늘어난 현재에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번역서를 읽는 독자는 번역가라는 창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른 세상과 교류하는 것이다. 전체 번역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동적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독자가 근래에 들어 번역학 내에서도 점차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번역가의 딜레마는 ‘무엇에 충실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번역을 하는 번역가와 번역을 수용하는 독자가 서로의 견해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사료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논문은 독자에 대한 충실성 재고를 주장하기 위해 칙릿의 효시인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와 『브리짓 존스의 애인』 번역본으로 금기 비속어 번역 양상을 살펴 보고 번역과정에서 발생한 번역의 ‘생략’과 ‘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참여자들의 반응과 견해를 분석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이 분석한 작품을 대부분 읽지 않은 관계로 ‘독자’의 견해라고 볼 수 없는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의 응답자들이 설문 문항을 통해 번역문과 원문의 차이를 확인했을 때, 보다 충실한 번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충실한 번역을 위해, 번역의 난관과 제약을 헤쳐 나가기 위해 독자에 대한 보다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2010) 「문학번역에서의 충실성의 문제: Les Piquets de ma mere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2(1): 21-47.
- 김순미 (2010) 「문학번역에서의 격식성(formality)의 변화」, 『번역학연구』 11(1): 127-59.
- _____ (2012) 「온라인상 독자들의 번역비평」, 『번역학연구』 13(2): 7-40.
- 김용진 (2007) 『사회언어학적 코퍼스 분석의 실제』, 서울: 올린책상.
- 김희진 (2010) 「문학번역의 충실성 개념 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타난 음성적 언어유희의 한국어와 프랑스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3(2): 81-99.
- 남희진 (2008) 『「브리짓 존스의 일기」: 오스틴 다시쓰기와 극복』, 『현대영미소설』 15(2): 85-105.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경기: 창비.
- 윤지성 · 이재호 (2013) 『논문을 위한 통계분석(SPSS활용)』, 서울: 한국이퍼브.
- 전현주 (2008) 『번역비평의 패러다임』, 파주: 한국학술정보.
- 한미선 (2011) 「비속어의 영한번역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2(3): 281-306.
- _____ (2012) 『금기 비속어 영-한 번역 연구: 격식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Álvarez, María Antonia (1997) 'Fidelity to the original in literary translation: Micro-and macro-analysis of translational phenomena', *TRANS* N(2): 67-81.
- Kolawole, S. O. & Salawu, Adewuni (2008) 'The Literary Translator and the Concept of Fidelity: Kirkup's Translation of Camara Laye's L'Enfant noir as a Case Study', *Translation Journal*

<http://translationjournal.net/journal/46lit.htm>.

McEnery, Anthony & Xiao, Zhonghua (2004) 'Swearing in Modern British English: The Case of Fuck in the BNC', *Language and Literature* 13(3): 235-268.

McEnery, Anthony(2006) *Swearing in English: Bad language, purity and power from 1586 to the present*,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Karjalainen, Markus (2002) *Where Have all the Swearwords Gone? An Analysis of the Loss of Swearwords in Two Swedish Translations of J.D. Salinger's Catch in Rye*, Unpublished 'Pro Gradu thesis'. Finland: University of Helsinki.

Santaemilia, José (ed.). (2005) *Gender, Sex, and Translation: The Manipulation of identities*. Manchester, U.K.: St. Jerome Pub.

_____ (2008) 'The Translation of Sex-Related Language: The Danger(s) of Self-Censorship(s)',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 21(2): 221-52.

Williamsson, Joy (2009) 'How Brits Swear: The use of swearwords in modern British English', *Mittuniversitetet* <http://miun.diva-portal.org>.

<분석대상 텍스트>

임지현 옮김 (1999) 『브리짓 존스의 일기』, 서울: 문학사상사.

임지현 옮김 (2000) 『브리짓 존스의 애인』, 서울: 문학사상사.

Fielding, Helen. (1997) *Bridget Jones's Diary*, London: Picador.

Fielding, Helen. (1999) *Bridget Jones the Edge of Reason*, London: Picador.

(첨부)

[설문 문항]

1. 브리짓 존스의 일기(Bridget Jones's Diary)에 대해서

- 1) 영화를 보고 소설도 읽었다.
- 2) 영화를 보았다
- 3) 소설을 읽었다.
- 4)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
- 5) 전혀 모른다.

2. 브리짓 존스의 일기의 후속 편인 브리짓 존스의 애인(Bridget Jones: The Edge of Reason)에 대해서

- 1) 영화를 보고 소설도 읽었다.
- 2) 영화를 보았다
- 3) 소설을 읽었다.
- 4)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
- 5) 전혀 모른다.

3. 다음은 소설의 일부입니다: “브리짓! 당신이 화면에 잡혔다구.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끄러져 내려와야 하잖아?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 고, 고!”

밑줄 친 부분을 읽을 때

- 1) 대화 상황이 이해가 가며 화자(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 2) 화자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뭔가가 부족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3)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 가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4) 대화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화자의 감정을 읽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 5) 잘 모르겠다.

4. 다음은 소설의 일부입니다: ‘모두가 일제히 나를 응시했다. “뭐라고 말을 좀 해봐. 또 지각한 브리짓 양!”

밑줄 친 부분을 읽을 때

- 1) 대화 상황이 이해가 가며 화자(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 2) 화자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뭔가가 부족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3)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 가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4) 대화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화자의 감정을 읽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 5) 잘 모르겠다.
5. 다음은 소설의 일부입니다: “마이 달링, 당신은,” 그가 나의 가슴 한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천재로군!” 아아, 옛날부터 얼마나 천재가 되기를 바랐던가! 하지만 내가 진짜로 천재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더욱이 한 쪽 가슴이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밑줄 친 부분을 읽을 때

- 1) 대화 상황이 이해가 가며 화자(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 2) 화자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뭔가가 부족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3)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 가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4) 대화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화자의 감정을 읽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 5) 잘 모르겠다.
6. 다음은 소설의 일부입니다: “사실 저는 다이시와 엘리자베스의 스크린 밖에서의 로맨스를 취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처드는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쳐다봤다. “멋지군!” 그는 존경스럽다는 듯이 감탄했다.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해. 좋았어! 다이시와 엘리자베스를 연기하는 배우들은 누구야?”

밑줄 친 부분을 읽을 때

- 1) 대화 상황이 이해가 가며 화자(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 2) 화자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뭔가가 부족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3)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 가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4) 대화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화자의 감정을 읽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 5) 잘 모르겠다.

7. 다음은 소설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미혼으로 남아 있는 남자들은 아주 커다란 결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잘난척하는 기혼자들의 말이 맞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밑줄 친 부분을 읽을 때

- 1) 대화 상황이 이해가 가며 화자(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 2) 화자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뭔가가 부족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3)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 가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4) 대화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화자의 감정을 읽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 5) 잘 모르겠다.

8. 다음은 소설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길 두 번 다시 내가 대마초 피우는 걸 보게 된다면 아파트를 몰수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웃기지마 아빠’”

밑줄 친 부분을 읽을 때

- 1) 대화 상황이 이해가 가며 화자(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 2) 화자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뭔가가 부족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3)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 가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4) 대화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화자의 감정을 읽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 5) 잘 모르겠다.

9. fuck, fucking, fuckwit과 같은 단어들에 대한 견해

- 1) 일반적으로 대화에 많이 사용되는 영어로 하는 욕(비속어)이라고만 생각한다.
- 2)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욕이라고 생각한다.
- 3) 성적 의미만 담고 있는 표현으로 알고 있다.
- 4) 욕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을 정도로 친숙하게 접하는 표현이다.

10. 다음은 소설의 원본과 번역의 일부로 원본의 “fuck”이 번역문에서는 생략되어 번역되었습니다.

'Bridget! We're on you. **What the fuck are you doing?** You're meant to be sliding down the pole, not climbing up it. Go, go, go.' (p.223)

“브리짓! 당신이 화면에 잡혔다구.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끄러져 내려와야 하잖아?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 고, 고!” (p.283)

- 1)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3)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 4) 원본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비속어 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5) 잘 모르겠다.

11. 다음은 소설의 원본과 번역의 일부로 원본의 “fucking”이 번역문에서는 생략되어 번역되었습니다.

Everyone stared at me. 'Come on, **Bridget-fucking- late-again,**' he shouted impatiently. (p.248)

모두가 일제히 나를 응시했다. “뭐라고 말을 좀 해봐. **또 지각한 브리짓 양!**” 리처드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악을 썼다. (p.317)

- 1)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3)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 4) 원본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비속어 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5) 잘 모르겠다.

12. 다음은 소설의 원본과 번역의 일부로 원본의 “fucking”이 번역문에서는 생략되어 번역되었습니다.

'You, my darling,' he said to one of my breasts, 'are an absolute fucking genius.' I always hoped I would turn out to be a genius, but I never believed it would actually happen to me – or my left breast. (p.249)

“마이 달링, 당신은,” 그가 나의 가슴 한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천재로군!**” 하지만 내가 진짜로 천재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더욱이 내 한쪽 가슴이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p.318)

- 1)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3)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 4) 원본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비속어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5) 잘 모르겠다.

13. 다음은 소설의 원본과 번역의 일부로 원본의 “fucking”이 번역문에서는 생략되어 번역되었습니다.

He looked me up and down slowly. 'Brilliant,' he said reverently. 'Absolutely fucking brilliant. OK. The actors who play Darcy and Elizabeth? (p.248)

“사실 저는 다이시와 엘리자베스의 스크린 밖에서의 로맨스를 취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처드는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쳐다봤다. “멋지군!” 그는 존경스럽다는 듯이 감탄했다.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해. 좋았어!

- 1)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3)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 4) 원본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비속어 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5) 잘 모르겠다.

14. 원본의 “fucking”과 해당 부분의 번역문을 비교할 경우

That is why everything is such a fucking, fucking, fucking ... (p.68)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p.86)

- 1)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3)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 4) 원본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비속어 이므로 완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5) 잘 모르겠다.

15. 원본의 "**Fucking**"과 해당 부분의 번역문을 비교할 경우

I mean, he said if he found me smoking skunk again he'd take away the flat. And I'm like, "**Fucking, Daddy**" (p.6)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길 두 번 다시 내가 대마초 피우는 걸 보게 된다면 아파트를 몰수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웃기지 마, 아빠**.’” (p.20)

- 1)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3) 번역본이 원본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 4) 원본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비속어 이므로 완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5) 잘 모르겠다.

16. 비속어, 성적인 표현에 대해

- 1) 원작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히 완화해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원작의 의도대로 독자로서의 입을 권리를 위해 최대한 반영해서 번역해야 한다.
- 3) 번역서의 경우 원문을 모르므로 번역문이 원활하게 읽힌다면 완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4) 잘 모르겠다.

[Abstract]

**For Whom Fidelity should be Maintained?:
A Study on Translation Patterns of Four-letter Words and
the Survey for Reception of Translation**

Kim, Ga Hee · Park, Yoon Hee
(Dongguk University, Seoul)

The translation of taboo, swear, and slang words is one of the trickiest jobs translators can face in literary translation. Nevertheless, they need to be translated faithfully to achieve the aim that is to create a text which will produce the same pleasure for target readers as the source text do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ider the notion of 'fidelity' for target readers with regard to translation patterns of the four-letter word '*fuck*'. To address this, the translation of the lexeme *fuck* and its morphological variants (*fucking*, *fuckwit*, etc.) into Korean is analyzed based on the same criteria proposed by McEnery and Xiao (2004). The analyzed novels are *Bridget Jones's Diary* (1996) and *Bridget Jones: The Edge of Reason* (1999) by Helen Fielding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A significant feature in analysis is that both translations trivialize a highly sensitive resource such as the corpus of *fuck* through 'omission' and 'mitigation'. In regard to this, a survey asking respondents' views on these omissions and mitigations in translated books is conducted targeting 245 college students and 48 in work. What the respondents expected from existing translation and for whom fidelity should be maintained are reconsidered with the results drawn by the statistical study on the basis of this survey. Readers accepting and consuming translation products are expected to increasingly take the important roles on the market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more studies on 'readers' are needed for better translation.

▶ Key Words: fidelity, literal translation, four-letter words, statistical study

김가희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8676dku@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해석학, 문학번역 비평 및 평가

박윤희

동국대학교 영어영문과 교수

pkyh@dongguk.edu

관심분야: 중세 영문학, 문학번역, 해석학, 번역철학

논문투고일: 2013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16일